

“좋은 연기 위해 ‘멘탈강화’ 힘써… 연기자 권익보호 앞장”

인터뷰 | **최 범 호 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TV 드라마, 영화, 각종 OTT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작품이 공개되고 있지만, 작품을 통해 대중 앞에 보여지는 연기는 제한적이다. 감독이나 캐스팅 디렉터에 선택받지 못하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방송연기자의 안타까운 숙명이다. 소속사가 없는 사회초년생 연기와 한 때는 잘나갔더라도 지금은 세월 앞에 장사없는 중장년 배우의 경우는 더욱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최범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가 선후배 연기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최 사무총장을 만나 당면한 현실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방송연기자들의 권익보호 및 자질 향상,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97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현재 19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초대 회장 이순재를 시작으로 현재 25대 이사장 자리에는 배우 최수종이 앉아 있다.

최범호 사무총장은 “지난해에 최수종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방송연기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며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장이나 연기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에 맞게 협회 소속 연기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총 30명의 연기자를 선발해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8주간 주3회에 걸쳐 이론부터 실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최 사무총장은 “많은 예술인이 의의

로 대인기피증이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점이라면 멘탈 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무너지면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좋은 연기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멘탈 특강에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멘탈 특강에는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대표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최창호 서울현대전문학교 석좌교수 등을 초청해 진행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는 솜품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유튜브에 업로드해 대중에게 공개한다.

“과거에는 방송국 TV 드라마 감독들이 배우들을 발탁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외주 제작사를 두고 드라마를 제작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없고,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오디션 정보를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고령층 배우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겠죠. 그러



최범호 사무총장이 방송연기자협회 역대 이사장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방송연기자협회 1971년 설립

현재 소속회원 1900여명 달해

개인이 오디션 정보 등 알 길 없어 사각지대 없애는게 협회의 생각

K-컬처의 힘, 선배들이 일궈내 그들 외면 말고 협회가 나서야



한 분들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두지 말자는 게 협회의 생각입니다. 협회는 많은 연기가 출연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 홍보물 제작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대중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홍보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지난해 연천군과 ‘대중문화예술을 통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천군의 각종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홍보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

송의여자대학교와도 K-드라마를 대표하는 연기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현장실습 및 교수 산업체 연수에 대한 협력 ▲산학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 연계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인적교류 확대 등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방송국마다 공채 탤런트 제도가 있어 자연스럽게 협회가입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 신규 회원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연기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뭐가 좋으냐’ ‘협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현 시기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드라마 콘텐츠 제작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콘텐츠 플랫폼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과거에는 지상파 3사 채널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tvN을 비롯한 케이블 채널과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채널, 국내외 OTT 서비스까지 드라마 시장이 여러 플랫폼으로 쪼개지면서 전문 제작사도 생겨났다. 유명 에이전시와 소속사, 제작사 디렉터의 정보가 없으면 출연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최 사무총장은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연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K-컬처의 힘은 그동안의 선배 연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일궈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고 협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가 하는 일이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제공, 친목단체 어느 하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드라마 산업이 환경적·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배우자에 허위 급여… 회계사 부당거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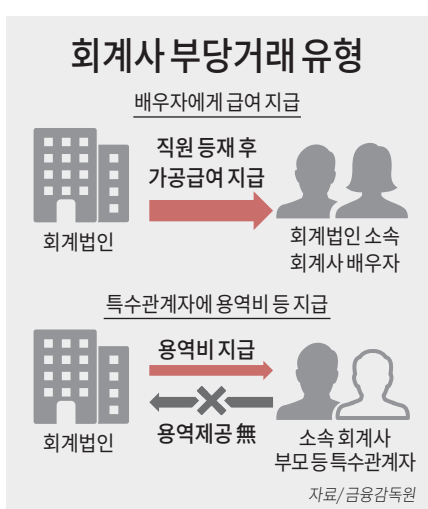
금감원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사례 관련 회계법인 부당행위 엄정조치”

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올리고 월급을 받아가다가 하면 자녀나 부모님에게 용역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에 앞장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갑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해 증빙도 못했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 내에는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가 전혀 없었다.

B 회계사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자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앱 개발회사 등으로 용역과 전혀 무관한 곳들이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해당 거래처는 업무를 수행할 전

문인력이 없는 곳이었다.

C 회계사는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무 경험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주는가 하면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나 관련 업무를 했다는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하철 객실의자 없애 혼잡도 낮춘다

서울교통공사, 내년 1월 시범사업 혼잡도 높은 4·7호선부터 시작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으로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4·7호선 각 1편성에서 2개칸 내 일반석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줄이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공사 관계자는 “객실 내 의자 제거는 호선, 차호,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밀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 우선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4호선과 7호선은 올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로 여전히 150%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혼잡도 완화와 수송력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객실 의자 제거 시 지하철 혼잡률은 34.1%~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 탑승



전동차 객실 의자 개선 후 모습. /서울교통공사

공간을 확보해 승객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공사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높은 혼잡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호선 3편성 30칸, 7호선 1편성 8칸의 도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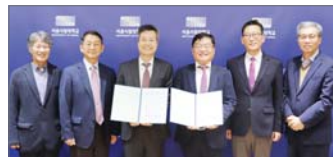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범사업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전청조, 남현희에게 최소 10억 금품 제공…4억 벤들리도 선물”
▲고용부 장관 만난 청년근로자 “사장이 괴롭히니 조사 어려워” /사진 뉴시스

▲검찰, 부실대출 혐의 부산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사퇴,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



▲서울시립대, 케이엔솔과 ‘첨단 반도체 분야’ 협약 /사진 서울시립대
▲차량 화재 현장서 의식 잃은 모자 구한 시민 2명 감사장